

치 사

한여름 8월의 무더위에도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KBUF 한국대학
생불교연합회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께 찬탄과 격려를 전하며, 제7회 2016년 KBUF
Young Buddhist Camp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생 불자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희망이 없다는 의미로 헬조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되고 있는 듯합
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대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때론 힘에
부쳐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스스로
가 초라하게 여겨지고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한 일상으로 빠져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어떻더라도 상관없다’를 주제로 삼은 올해의 캠프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든든한 의지이자 지혜로운 지침이 되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가
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며, 천금으로도 바꿀 수 일생일대 최고의 보물입니
다. 여러분이 간직한 가치는 불교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기에, 현
재와 미래의 인재로서 사회의 동력이며 등불이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정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충남불교를 대표하는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일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 모
두가 부처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로 성장하기를 바랍
니다. 대학생만이 보일 수 있는 불멸보다 더하는 열정으로 앞날의 결실이 알차게 영글
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제7회 KBUF Young Buddhist Camp를 준비한 대불련 박태우 회장을 비롯하여 전
국의 대학생 불자들의 소중한 진력을 치하하며, 청년대학생 불자들의 활동에 격려와 지
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60(2016)년 8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